

豫防技術에 注力하기를



전 영 도

<大韓佛敎眞言宗 金剛庵敎務>

火災, 그러니까 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불, 「불」 그렇지 “불은 電話 119로!” 善良한 小市民은 늘 정부에서 啓蒙하고 周知한 바로 그 표어, 당국에서 빨간 색칠을 한 표어를 큰 문에 붙여 놓은 그 말이 맨 먼저 생각난다. 역시 불이 났다면 무서움이 앞선다. 그런데 求原치고는 불구경만큼 재미있는게 없다는 아주 고약스런 얘기가 있다. 남의 집 불이라 해서 재미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일게다.

나는 지금까지 불구경을 두번 했다. 한번은 아주 어렸을 때, 칠팔세 때인가 시골 큰 데에 갔다가 그 이웃 동네에 초가가 타는 불구경을 했다. 이웃 동네에서 난 불을 빨리 가서 불려고 어찌나 뛰어 갔던지 숨이 꽤나 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현장에는 정말 초가집이 몽땅 불에 잠겨 있었고 이글거리는 시뻘건 불꽃이 내 간을 쫓알만하게 했다. 내 포래의 그 집 아이들이 울고 불고 있는데 그 부모는 하나라도 더 살릴살이를 건져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시골 두메여서 끄집어 낼 살림이 그리 많았겠느냐고 반문도 있겠지만 그 집 식구에게는 그것이 全財産이요, 온 식구의 생활도구였을 것이다. 나중에는 불이 너무 거세어져서 아무도 집에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다 타고 있는 집을 어쩔 수 없이 구경하고 있었을 뿐이다. 물론 電話도 없고 튼이나 面도 멀어서 소방서에 연락한다는 따위는 아예 엄두도 못냈다. 개천에서 퍼 나르는 물로는 그 잘 타는 초가에 부채질 격이었다. 다 탄 걸 보고 돌아 오는데 “저 집은 인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걱정되어 밤맛도 없고 내가 무엇이라도 가

진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 어릴적 불구경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다시 진짜로 큰 불구경을 하게 됐다. 년전에 江陵에 살고 있을 때다. 서울에서 큰 불이 났다는 것이다. 단칸 셋방에 동네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서 大然閣호텔 화재 실황T V중계를 보았다. 워낙 큰 건물이고 마침 「크리스마스」 날이어서 宿泊客도 많았는데 불은 종일 지칠줄 모르고 타올랐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財産 및 人命의 損失을 봐야만 했다. 그 때의 慘狀은 상세히 보도되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메트레스」를 묶지도 않은채 안고 뛰어 내린다는가, 2, 3층에서는 그냥 맨 몸으로 뛰어내리는 등의 무모한 행동으로 더 큰 人命被害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흉악한 일이 어찌 나한테 생길까 보냐는 식의 思考는 脫被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마침 韓國火災保險協會가 火災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해 발족했다.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研究啓蒙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被害를 최대한으로 막아보려 한다고 하니 께이나 기쁜 마음이 든다. 서울과 같은 인구조밀지역에 사는 나로서는 화재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생각과 아울러 때때로 신문에서 보는 화재사건이 消防施設이나 避難施設의 未備, 심지어는 警報裝置의 고장으로 火災被害가 더 커진 예를 종종 보아 왔다. 그 때문에 韓國火災保險協會의 설립에서 화재 防止를 위한 여러가지 技術的인 面의 點檢과 아울러 火災時의 迅速한 通報體制와 救助계획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막는 豫防技術에 앞장 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